이덕일의 '역사의 창'

교과서 백제, 이대로 좋은가

현재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백제 관련 기사는 "백제와 부여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성립하였다"라고 시작한다. 뒤이어 "하남 위례성을 수도로 삼은 후 마한의 소국들을 제압하며 성장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가장 많은 학교에서 채택했다는 비상교육의 '고교 한국사'의 내용인데, 다른 검정교과서도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나 현재 사용하는 문재인 정권 때의 검정교과서는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여러 번 말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 교과서는 건국 시조 이름도 안 썼다. 한 문중의 족보를 편찬하면서 시조 이름을 빼고 편찬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교과서 편찬자들에게는 없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역사를 쓰려다가 죽은 뼈다귀의 이름만 적어 놓고" 말았다고 비판했지만 한국사 교과서에는 '죽은 뼈다귀의 이름'도 없다.

그 다음 교과서는 "백제는 3세기 경 고이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중 '백제 온조왕 본기' 27년(서기 9년)조는 "여름 4월에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마한이 서기 9년에 멸망했다는데 교과서는 3세기 중반 고이왕 때에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 망했던 마한이 다시 살아나서 고이왕의 백제와 싸웠다는 것일까? 이를 알려면 삼국사기 '백제 고이왕 본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 '고이왕 본기'는 마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온조왕이 서기 9년에 마한을 멸망시켰다는 '삼국사기' 기사는 가짜라는 것이다. 온조왕이 아니라 고이왕이 멸망시켰다는 것이다.(노중국 '백제정치사 연구', 이기동 '백제국의 성장과 마한 병합') '삼국사기'는 온조왕이 마한을 멸망시켰다는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온조왕이 아니라 3세기 중엽의 고이왕이 멸망시켰다고 우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물론 그런 사료적 근거는 없다. 자신들이 그렇게 본다는 '두 눈'이 유일한 근거다.

그럼 "고이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했다"는 기사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국 강단사학계의 태두(?)라는 이병도가 "나의 연구한 바로는 엄밀한 의미의 백제의 건국은 온조로부터 제8대 되는 고이왕 때부터 되었다고 믿는 바이다"(이병도 '조선사대관')라고 말한 것이 근거이다. 백제는 온조왕이 아니라 고이왕이 건국했다는 것인데 이마니시 류(今西龍),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같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광복 77주년이 되는 지금껏 추종하는 것이다.

이 교과서는 또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은 … 왜와 교류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짐작하겠지만 삼국사기 '근초고왕 본기'에는 '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 기사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국 재점령을 꿈꾸는 일본 극우파들의 성서인 '일본서기'는 신공왕후의 사신 사마숙녜의 시종 이파이가 백제에 가자 초고왕이 막대한 선물을 주면서 "계속 조공품을 바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백제 근초고왕이 신공왕후의 사신의 시종에게 "계속 조공품을 바치고 싶다"고 간청한 것이 교과서 집필자들의 눈에 '왜와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서기'는 백제 초고왕이 야마토왜의 신하라고 자청하면서 영원히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모두 거짓말이지만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사실로 본다. 이들이 일본 극우파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교과서 집필권을 가지고 우리 후세들의 역사관을 망쳐 놓는 것은 자유의 범주를 넘는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담당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이들과 카르텔이라도 형성하고 있는지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상적 독립 국가의 길은 아직 멀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모든 치아가 중요하다

박 정 회
화순 닥터박플란트치과 원장

진료를 하다 보면 이삼일에 한 번 이상 듣는 말이 있다. "어금니는 안 보이니 앞니만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나이도 지긋하신 환자분들이라 사자성어로 대답하곤 한다. 바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말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이고, 그 의미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알고 계신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선뜻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 보신다. "그게 앞니랑 무슨 상관이오?"

어릴 적 유치를 다 갈고 성인이 된 사람의 이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이다. 28개의 이는 저마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는 없고, 빠져도 상관없는 이는 없다. 하지만 13세쯤 완성된 치아들은 그 후 수십 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지거나 빠지게 된다. 사실 앞니가 빠지거나 부러지게 되면 체면치레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자리에 이를 해 넣게 된다. 비용은 아깝지만 빠져 있으면 뻔히 보이기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어금니가 빠졌을 때이다. 어금니는 하나 빠져도 일단 보이지 않으며 불편하긴 하지만 식사를 반대쪽으로 하거나 우선 있는 어금니로 씹어서 해결한다. 그렇게 되면 당장 식사를 못하는 게 아니기에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나중에"라면서 점점 미루게 된다. 그러는 사이 남아 있는 어금니들은 빠진 어금니의 몫까지 음식을 씹는 일을 해내느라 원래 주어진 일의 양보다 많은 양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한 개가 빠지면 그 이와 부딪히며 음식을 씹어 주던 반대 턱 어금니 한 개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니 두 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게다가 빠진 치아 공간으로 반대편 치아는 내려가거나 올라오고, 그 양 옆의 치아는 치아가 빠진 자리로 조금씩 기울어진다. 이 상태로 몇 년 지나가다 보면 전체 어금니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부서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앞니는 아래 앞니와 부딪히는데 어금니가 무슨 상관일까? 위턱 아래턱의 전체 이들이 서로 물리는 상황이라는 '교합'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치의학에서는 위아래턱을 다물어 어금니를 부딪치는 순간에는 앞니는 서로 닿지 않으며 아주 꽉 힘을 주게 되어 어금니가 서로 아주 강하게 물리는 경우에 아래 앞니의 끝부분이 윗 앞니의 혀 쪽 면에 살짝 닿게 되는 것을 '정상 교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상황은 아주 중요한데 치아는 수직적인 힘에 저항하는 힘은 아주 강하나 옆으로 미는 힘의 경우는 약한 힘이라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저항하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기 때문이다. 아래 앞니가 삐뚤빼뚤하거나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 젊었을 때는 괜찮았으나 나이가 들게 되면 윗 앞니가 벌어지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얼굴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물며 어금니가 없거나 모자라서 앞니가 음식을 씹는 어금니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겠는가? 평상시에는 닿지 않아야 하는 앞니들이 매순간 닿게 된다면 앞니들은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부러지게 된다. 물론 잘 씹히지도 않기 때문에 환자도 음식을 오물오물 씹어 그냥 대충 삼키게 되고, 소화 불량 등 소화기 계통의 질병도 생길 수 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어금니가 없는 환자의 "앞니 만 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진다. 당장이야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오래 쓰지 못할 상황임을 알고 있는 이상 책임감 있는 치과의사라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 주기 어려울 것이다.

'앞니' 이야기 하나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듯 하지만 진료실에서 너무나 자주 듣는, 해결해 드리기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환자들에게 구강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기 고

기업과 사회복지, 'ESG'로 통하다

주 경 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기업 평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ESG'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자 관점에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통해 협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문 지면에서 'ESG'를 처음 접했을 때는 UN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MDGs)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등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가볍게 치부해 조만간 사그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자되는 횟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고 업종에 맞게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에서는 특히 '나눔 문화' '사회 공헌' 개념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21년 'ESG로 가는 길'(Way to ESG)이라는 부제의 사회공헌 백서를 발간했고, 서울시복지재단도 제10회 사회공헌 시상식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ESG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투자 및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ESG 경영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제적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큰 변화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SK, 한화 등 대기업들은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협치)라는 말은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친숙한 느낌마저 든다. 사회복지에서는 그동안 '환경 속의 인간', '생태 체계적 관점' 등의 용어처럼 개인을 둘러싼 환경까지 고려해 비영리 조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책무성을 중요하게 다뤄 왔다. 거버넌스 또한 이를 통해 기관, 지역단체, 지자체와 협력하며 사회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해 왔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복지 협치' 조례를 만들고 민·관·정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의제로 선정해 논의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의 국제적 흐름 또한 마찬가지이다. MDGs나 SDGs를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바로 포용 사회(Inclusion), 즉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이며, 협력을 통해 '번영이 지속 가능한' 지구촌 만들기이다. 기업의 ESG로의 변화의 핵심도 들여다보면 역시 '포용 사회'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있다.

그렇다면 'ESG' 경영 가치야말로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허물고, 지구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영리' 사회복지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광주 최대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빛고을 노인건강타운'도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로 임시 휴관 중이던 지난해 산림청 '실내 숲 조성 사업'에 선정돼 10억 원의 예산으로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했고, 자원 순환을 위한 에코바이크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주 숲체원과 협약을 맺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그린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사랑의 생명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추진하고 웰다잉(well-dying) 운동의 첫걸음으로 이용 회원들이 손쉽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기관 등록을 신청했다. 등록 기관으로 승인이 나면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기업의 새로운 평가 기준인 ESG에 맞춰 복지 기관도 지속 가능한 지구촌 만들기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노인건강타운 이용 어르신들이 단순한 복지 수혜의 대상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한 주체이자 '노풍당당한' 선배 시민으로 거듭날 것이다. 일상으로 복귀가 시작된 희망찬 봄날, ESG 경영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까닭이다.

社 說

시도지사 대진표 완성…지역 발전 경쟁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출됐다. 이로써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정당의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후보가 확정돼 본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강 전 수석은 57.14%를 득표해 이용섭 광주시장을 14.28%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승리의 요인은 조직과 정책으로 요약된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4년 전 경선에서 이 시장에게 패한 뒤 꾸준한 세 결집과 함께 '강성·투쟁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신을 시도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광주의 다양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으로 승부한 점도 비결로 꼽힌다. 이에 따라 강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윤심'(윤석열의 복심) 주기환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장연주·기본소득당 문현철·진보당 김주업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됐다.

전남지사 선거도 일찌감치 민주당 공천을 확정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김 지사는 엊그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겠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보수 정당 후보로는 호남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민점기 전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은 진보당 후보로 선거전에 뛰어들어 3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1995년 전면 실시 이래 여덟 번째를 맞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본선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광주·전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대선의 여세를 몰아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발전이 더뎌 모든 면에서 낙후와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들은 지역의 미래 발전 비전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중고'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책 필요하다

음식점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2년여 만에 각종 방역 조치가 종료돼 이제부터라도 마음껏 장사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배달 수수료 인상과 치솟는 식자재 가격, 구인난 등 3중고(苦)에 가로막혀 오히려 울상을 짓고 있다.

광주시 동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팔면 팔수록 몸만 고되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가 지나면 좋은 날이 올 줄 알고 2년간 힘들게 버텼는데 밀가루와 식용유 값이 갑절 이상 오르고 시급의 1.5배를 준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몸으로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싼 맛에 찾는 분식집이라 손님이 끊길까봐 섣불리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다.

구인난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올해 1분기 광주 지역에서 구인 공고를 낸 건수는 6만5000여 건으로 1년만에 53%나 늘었다.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또 다른 요인은 배달 전문 플랫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배민)의 횡포다. 배민은 이달 초 배달 수수료를 대폭 올렸다. 기본 거리 1.5㎞당 2900원 하던 수수료를 3500원으로 올린 데다 거리가 늘고 주소지 행정동이 달라질 경우 추가 요금을 받는 구조로 요금 체계를 바꿔 사실상 기본 배달료만 5000원이 됐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골목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전 세계적 인플레로 인한 식자재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배달 플랫폼의 횡포는 정책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오늘 발표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에도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주는 맞춤형 대책이 함께 담기기를 기대한다.

無 等 鼓

'높이'는 돈이다

미국 뉴욕에 최근 초고층 아파트인 스타인웨이 타워가 들어섰다. 높이가 최고 82층 무려 435m에 달하지만, 건물 폭은 18m에 불과하다. 건물 너비 대 높이 비율이 1대 24인데, 마치 연필 하나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연필 밑에는 98년 된 낡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건축된 것일까. 먼저 스타인웨이 타워가 있던 자리에는 명품 피아노 제조업체 스타인웨이 앤 선스가 1925년에 지은 '스타인웨이 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역사적 가치가 높아 2001년 랜드마크로 지정됐으며, 개발자 마음대로 철거가 불가능했다. 뉴욕은 기념 건축물 보존위원회가 있는데, 역사성·장소성을 가진 건축물은 철거할 수 없고 예산 보조를 통해 내부 리모델링만 가능하다.

여기에 건축물 높이도 규제된다. 해당 부지의 경우 중심 상업 지역임에도 최대 212m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건축주는 높은 용적률에도 주변 저층 건물의 공중권, 즉 건물을 더 높일 수 있는 권리를 무려 1616억 원에 사들여 지금의 높이를 달성할 수 있었다. '높이'가 곧 '돈'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경우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상업 지역에만 적용된다.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미국 뉴욕에서도 이처럼 유서 깊은 건축물은 반드시 보존하고, 높이를 규제해 도시 경관을 유지하려고 한다. 유럽 도시의 경우 성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은 중세·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며 낮게 유지하는 대신 외곽 신도심은 높게 개발하고, 미국 도시는 중심 상업 지역이면서 수요가 있는 도심은 높게 지을 수 있게 하되 주거 지역은 적정한 밀도로 조성해 쾌적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우리의 도시의 경우 모든 토지에 마치 선심 쓰듯 지나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고, 그것도 부족해 각종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바람에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몽땅 밀어 버리는 재개발로 의미 있는 건축물도 하루아침에 폐기물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 건축물 높이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 내 건축물 평균 층수보다 더 높이 짓게 하는 것은 특혜임을 인식해야 한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